

포커스-e기업

비전 2020' 선포 및 희망찬 미래를 향한 청사진 제시

(주)이오시스템, 창립 30주년 한마음 축제 개최

취재 | 박지연 기자 |

광전자 전문업체인 이오시스템(대표·이원승, www.eosystem.com)이 지난 3월 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 내빈들을 초청하여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 행사에는 이원승 회장과 이동하 사장을 비롯하여 박춘봉 부원광학 회장, 노원복 한광옵토 회장, 은현기 회장, 권안도 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택희 한국광학기기협회 부회장 등 전, 현직 회사 임직원 및 임원과 임직원 가족들, 그리고 회사 창립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내빈들로 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오랜 가뭄 끝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 날씨속에서 진행된 이오시스템의 창립기념 행사는 이날의 날씨만큼 오랜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후 크게 성장 발전한 오늘의 회사발전을 자축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올해 이오시스템에 새롭게 합류한 신임 이동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010년 1천억 매출을 시작으로, 2015년 매출 2천억, 2020년 매출 5천억 달성을 목표로 세계를 선도하는 3대 핵심부품 개발과 함께 광학부품 및 장비에서 세계 명품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승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광학산업 여건 속에서 시작하여 이제 매출 1천억 원을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했다는 것에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기업환경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위기극복의 남다른 DNA를 갖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삼아 30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 핵심역량을 발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오시스템이 3월 5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 내빈들을 초청하여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어서 방위산업진흥회의 권안도 부회장, 부원광학의 박춘봉 회장 등이 내빈을 대표하여 이오시스템의 창립 30주년을 치하하는 축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회사 유공자 4명, 장기근속자 13명, 연구개발 19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이오시스템의 30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물 및 기관장 축하메시지 영상물 상영이 있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020년을 목표로 이오시스템의 향후 비전과 목표를 다짐하는 '비전 2020 선포식'이었다. 각 사업부서장들이 모두 단상으로 나와 개개인 모두가 2020 비전을 서약하고 모두의 결집력을 증명해 보였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가족사진 영상물 및 회사 홍보영상물 상영과 모듬북 난타공연으로 흥겹게 시작하여 '비전 2020 선포식' 및 사가제창을 끝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에서는 직원 및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는 팀파워 게임과 함께 레크레이



▶이동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매출 5천억 달성과 함께 이오시스템의 2020년 비전 및 목표에 대해 밝혔다.



▶이원승 회장은 "30년을 넘어서 100년을 향해 모든 핵심역량을 발휘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원승 회장이 회사 설립자였던 노원복 회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동하 사장이 연구개발 공로가 큰 직원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유공자 36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된 '보고 싶습니다' 코너를 통해 박춘봉 회장이 오래전 회사에 근무했던 이복선씨를 오랜만에 만나는 감격스러운 자리도 연출됐다.



▶각 사업부서장들이 모두 단상으로 나와 개개인 모두가 2020 비전을 서약하고 모두의 결집력을 증명해 보였다.

선이 열렸고 초청가수의 공연도 이어져 흥겨운 자리가 되었다. 지난 1979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오시스템은 1984년 방위산업체 지정과 함께 지난 30년간 렌즈, 프리즘 등 광학부품류 생산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체계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고, 소화기 및 공용화기용 주·야간 조준경체계, 전자/장갑차용 전자장 및 포수조준경 체계, 각종 미사일

용 감지센서, 무인경계/로봇시스템 등 첨단 방위산업 관련 제품과 광파기, 의료기기 등 민수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광학장비를 생산해 오면서 그 명성을 확고히 다져왔다. 지난해 매출 570억에 이어 내년 7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오시스템은 11년 후인 2020년에는 매출 5000억 달성과 함께 세계적인 광전자전문 제조업체로 우뚝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보였다.